

초 점

스티로폴 재활용 활동 정착단계에 돌입

- 작년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 26%로 최종 집계
- 올해는 스티로폴 회수 재활용체제 구축에 최선

스티로폴이 재활용 가능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된지 한달이 지났다.

지난 3월부터 스티로폴 분리수거가 시작되면서 그간 처리에 곤란을 겪었던 가정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에 드는 경제적 부담과 버리는 수고를 덜게되어 한결 편해졌다고들 한다.

또한 지자체는 매립이나 소각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활용업체는 원료조달이 더욱 쉬워진 이득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조기사행에 따른 홍보미흡과 준비소홀, 잉고트 가격하락 등의 문제점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어 국가적인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95년도의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과 96년도 계획을 협회의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작년 한해동안 페스티로폴은 총 4만톤이 발생되어 그중 26%에 해당하는 1만4백20톤이 재활용되었으며 이는 94년 페스티로폴 총 발생량

38,200톤중 21%에 해당하는 8,010톤을 재활용한것에 비하여 처리량으로는 2,410톤, 재활용율은 5%나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은 페스티로폴의 재활용이 가장 활발한 일본의 94년 재활용율 24%(우리나라는 94년 21%)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지자체, 관련업계, 정부 등이 꾸준히 스티로폴 재활용 운동을 전개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를 “스티로폴 회수 재활용 체제 구축의 해”로 정하고 스티로폴 발생 유형별 회수·재활용 체제구축, 스티로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및 국제 협력 강화, 페스티로폴 재활용율 30% 달성 등을 목표로 삼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가전사, 대형 유통업체와 적극 협력 회수·재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감용기 운전 교육 및 A/S 기동반 운영, 잉고트 비축창고 운영, 잉고트 수출선 확보 등 재생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스티로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스티로폴의 장점과 우수성 및 분리수거 요령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보전을 위해 귀중한 재활용 자원인 스티로폴이 잘 분리수거 되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련기업, 국민 모두가 적극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주민, 정부, 재활용업체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할 페스티로폴
분리수거제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표〉 페스티로폴 처리현황

(단위 : 톤)

년도	매립	소각	재생(재활용율)	미확인	합계
1993년	24,730	4,150	5,000(14%)	2,920	36,800
1994년	23,760	4,690	8,010(21%)	1,740	38,200
1995년	23,340	4,780	10,420(26%)	1,460	40,000